



정읍 정주고 배드민턴부, 2명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

지난해 6월 청간한 정읍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부(이하 정주고) 선수들이 주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되면서 청간시가 추진하는 체육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김윤후(2학년), 최재상(2학년) 학생으로 두 선수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 대한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동계 학술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로 떠난다.

정읍에는 배드민턴부 운영학교로 정읍동초와 정읍중학교가 있지만 지역 내 고등학교 운동부가 없어 관내 우수한 선수들이 전주와 군산 등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골몰했던 시는 지난해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주고에 배드민턴부가 청간되는데 기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마트타운, 남원 도통동에 이웃돕기 물품 기부

올해 들어서도 희망24나눔캠페인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 도통동은 지난 5일에는 마트타운(대표 김경주)에서 라면 50상자, 화장지 50상자(활가액 1,150천원)를 지정 기부했으며, 후원받은 현물은 관내 취약계층 및 1일 1 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방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트타운 김경주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면, 작은 손길이지만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윤자 도통동장은 “잊지 않고 꾸준히 기부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화건재 김정중 사장, 무주군에 장학금 기탁

무주군은 8일 무주읍 유화건재 김정중 사장이 무주군교육 발전장학재단에 3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정중 사장은 “무주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무주에서 나고 자라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운동도 잘하고 또 각 분야에서 잘 되는 것을 볼 때 흐뭇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아들에게 든든한 베풀목이 되고 싶은 마음에 후원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유화건재는 김정중 사장이 2개월 운영을 하고 있는 철물, 소방, 건축, 등을 판매업체로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이백면 맞춤형 복지팀, 찾아가는 경로당 추진

남원시 이백면 맞춤형 복지팀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시각화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도부터 시행한 건강프로그램에 인전 및 복지 프로그램을 추가,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경로당 혜자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한다.

이 사업은 건강·안전·행복 3가지 서비스의 원스톱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상담을 기본으로 긴급상황 대비 핸드폰에 119, 112 번호 저장, 네이버 클로바 케어풀 서비스 대상자 빌글 및 신청, 스마트폰 교육을 통하여 이백면 소식을 바로 알 수 있는 이백 톡톡(Talk, Talk) 앱 설치 등을 안내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값진 제1호 고향사랑 고액기부자’ 탄생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2번째 최고액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2024 값진년 새해 ‘값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김기병 회장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액 500만원 기부자이자 올해 첫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옮겨 남다른 ‘전북 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2024년 제1호 고액기부자의 탄생으로 앞으로도 전북 출신 우수인의 고액기부가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시행 2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담보제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온라인 고향사랑기부(www.ilovegphyang.gokr)과 전국 NH농협은행에 방문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는 6만3,000여명, 총 모금액은 약 84억8,000만원으로 목표의 73억4,000만원 대비 달성을 115%를 기록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잊지 않고 2년 연속 전북에 고향사랑 기부로 마음을 보내주신 김기병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전북 별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신년 인사회 열여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8일 고창부인축협 한우명품관에서 기관·사회단체장과 출향인사, 애향운동본부 임원 및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향운동본부장 이·취임식 및 신년 인사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제9대 김사중 본부장이 이임하고, 제10대 본부장에 백영종 본부장이 취임했다. 백영종 본부장은 현재 흥덕농협 조합장 전북농협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년 인사회는 새해 상징성을 갖는 유일한 군민 인사회다. 심덕섭 고향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 군의원, 김만기, 김성수 전북도의원, 기관·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의 구호와 함께 고창군 발전을 기원했다.

신임 백영종 본부장은 “애향 정신을 함께 실천해 준 모든 애향운동본부 기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병원, 지역사회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취약계층의 의료시각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다.

8일 전북대병원 공공부문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 및 센터를 대상으로 병원 내부 공모 및 외부평가를 거쳐 7개부서(센터 및 진료과) 8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장애인·노인·신부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의료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의료시각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추진될 8개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전라북도 내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의 위험인자 검진 및 관리(노인보건의료센터) △만성기도질환 바로알기(권역 호흡기센터) △장애인구강건강증진사업(장애인구강진료센

터) △임신 중 당뇨병환자 혈당 관리 지원사업(내분비내과) 등이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병원 내 진료교수를 중심으로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및 로컬병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도청, 교육청, 보건소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대상자 중심의 디각화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박지현 부부장은 “우리 병원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장애인·산모 등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를 잇는 의료체계를 강화해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이정권 디에이치 대표, 부안군 고향사랑 고액기부

부안군은 지난 2일 전남 광주 생활 가전 전문 업체 (주)디에이치 글로벌 이정권 대표가 부안군에 500만원을 기탁하며 2년 연속 제1호 고향사랑 고액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8일 전했다.

부안군 상서면 출신인 이정권 대표는 타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 중이며 평소 부안 군정에 관심이 많아 2016년부터 근농 장학 재단에 2016년 만 원의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예외 없이 2024년 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부안군에서 최초로 출생한 아이 부모에게 생활 가전제품을 선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안군에 고향사랑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임실경찰, ‘부고장 스미싱’ 전화금융사기 예방

료를 경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수병원 소화기의학센터는 세계 여러 나라의 내시경 의사를 초청하여 교육해 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라오스에서 온 여섯 명의 의사가 진단과 치료 내시경에 대해 교육받았다.

조진웅 센터장은 상피하종양에 대한 세계 최초로 경피적 절제술을 개발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위장관 분야 내시경 치료전문가로서,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글로벌네트워크교류위원회 이사와 전북지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회는 500여 명의 소화기 관련 의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학회이며, 다양한 소화기 질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같은 달 Hue 의약대학교에서 열린 ‘내시경 시연 워크샵’에서 소화기 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궜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궜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궜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궜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조진웅 소화기의학센터장을 지난 12월 베트남 나트랑에서 열린 ‘Best of HGE 2023’에 초청되어 ‘위장관에 생긴 심피하종양의 치료’에 대해 선진 의료 기술을 일굳다고 8일 밝혔다.

예수병원은